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현대에버다임(04144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에버다임(041440)

건설·광산장비와 소방 특장차의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산업장비 전문기업

기업정보(2026.10.20 기준)

대표자	유재기
설립일자	1994년 7월 1일
상장일자	2003년 11월 14일
기업규모	대기업
업종분류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어태치먼트, 타워크레인, 락드릴, 콘크리트펌프트럭, 소방차 등

시세정보(2026.10.20 기준)

현재가(원)	5,78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031
발행주식수	17,841,712주
52주 최고가(원)	11,320
52주 최저가(원)	5,020
외국인지분율	3.71%
주요주주	(주)현대지에프홀딩스

■ 건설기계 제조기술 기반으로 건설장비 및 소방 특장차 사업 영위 중

현대에버다임(이하, ‘동사’)은 유압기계, 차량 및 중장비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토목·광산·재난대응 분야에 사용되는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 유압브레이커, 천공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트럭, 소방 특장차 등이 있다. 충북 진천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연구개발 및 다품종 장비 제조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동사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제조기술, 글로벌 판매망을 기반으로 기존 건설기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재난대응 장비 및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 친환경·지능화 기술 발전의 성장 기회와 경기 변동이 공존하는 시장

목표시장은 건설경기과 인프라 투자, 자원개발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경기민감 산업으로, 제품의 작업 성능과 내구성, 가격경쟁력 및 사후관리 역량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한다. 글로벌 시장은 신흥국의 인프라 확충과 광산개발, 선진국의 노후 시설 유지보수 및 장비 교체 수요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기술적으로는 작업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 운용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지능화 및 친환경화의 변화가 나타나고, 어태치먼트 분야에서는 고효율 유압시스템과 저소음·저진동 설계, 내구성 및 장비 호환성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및 사업경쟁력 제고 추진 중

동사는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2025년 이라크 내무부와 체결한 대형 소방구조차량 공급계약은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주환원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현금배당과 기존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였다. 향후 신흥국 인프라·광산개발 투자와 글로벌 재난안전 수요 확대는 동사의 해외사업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방 특장차의 대형 계약 수행실적은 후속 수주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3,580.5	-4.4	119.8	3.3	63.9	1.8	3.5	2.2	62.9	357	10,235	17.8	0.6
2024	3,551.2	-0.8	99.5	2.8	65.8	1.9	3.6	2.2	57.5	367	10,552	22.5	0.8
2025	2,895.9	-18.5	54.1	1.9	46.4	1.6	2.4	1.6	53.9	259	10,745	31.7	0.8

기업경쟁력

다각화된 산업장비 사업 포트폴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광산용 기계장비부터 소방·재난대응 특장차까지 다양한 산업용 장비를 제조·공급하는 사업기반 확보
통합 설계·제조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하중 구조설계와 유압·전자제어, 정밀가공 및 안전성 검증 역량을 결합하여 복합 기계장비를 개발 및 생산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부설 기술연구소와 R&D센터를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과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품질·환경·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유압식 파쇄·작업장치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압에너지의 전달과 작동구조를 최적화하여 높은 파쇄 성능과 내구성, 작업장치의 교체 편의성을 구현하여 유압브레이커·크러셔·퀵커플러에 적용
고압 콘크리트 압송 및 붐 제어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펌핑 압력과 붐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고층·장거리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작업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콘크리트펌프트럭에 적용
소방·구조장비 통합설계 및 안전제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구조물의 정밀 구동과 안전제어, 고성능 소화설비 기술을 결합하여 고층 인명구조와 특수재난 대응 기능을 구현하고, 고가사다리차·굴절사다리차·특수소방차에 적용

시장경쟁력

글로벌 판매망을 활용한 해외시장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중국·몽골·파나마의 해외법인과 다수의 현지 딜러를 기반으로 지역별 건설·광산장비 수요에 대응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라크 내무부와외의 대규모 소방구조차량 공급계약을 통해 해외 재난안전 장비시장에서의 사업 확대 기반 확보
고객 맞춤형 제품 공급 및 사후관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작업환경과 고객 요구에 적합한 장비를 공급하고, 현지 부품 공급 및 유지보수 지원을 통해 고객 대응력 강화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하중 구조설계와 유압·안전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광산장비 및 고성능 소방 특장차의 작업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건설·광산 장비와 고난도 소방·구조 장비를 함께 개발·제조하는 기술 및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적된 설계·제조 경험과 안전성 검증 역량, 해외 납품실적은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우나 범용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경쟁이 존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연구개발조직과 국내외 생산·판매망을 기반으로 기술개발부터 제품 상용화, 해외 공급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I. 기업 현황

건설기계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건설·광산장비 및 소방·재난대응 특장차 사업 영위 중

동사는 유압기계, 차량 및 중장비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토목·광산·재난대응 분야에 사용되는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유압브레이커, 천공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트럭, 소방 특장차 등이 있다. 충북 진천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연구개발 및 다품종 장비 제조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동사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제조기술, 글로벌 판매망을 기반으로 기존 건설기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재난대응 장비 및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2003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차량 제조기업으로 설립 초기 중고 중장비 유통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건설기계 어태치먼트(Attachment), 콘크리트펌프트럭, 천공기, 타워크레인, 소방차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에버다임락툴과 한국타워크레인을 흡수합병하여 관련 제품의 제조기능을 통합하였으며, 건설·토목·광산·재난대응 분야에 사용되는 산업용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핵심 사업모델은 건설현장과 광산 등에서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공공 안전 분야의 특수목적 차량을 개발·제조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주요 제품은 콘크리트 운송 및 압송에 사용되는 콘크리트펌프트럭, 굴착기 등에 장착하여 파쇄·철거 작업을 수행하는 유압브레이커와 크러셔, 암반 천공용 락드릴 및 락툴, 고층 건축물 시공에 활용되는 타워크레인 등이다. 이와 함께 화재진압 및 구조용 소방차, 산업현장용 발전기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고 건설기계의 매입·정비·재판매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건설경기 및 인프라 투자에 연동되는 민간 장비 수요와 공공기관의 재난대응 장비 조달 수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동사의 생산체계는 진천 본사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거점을 분산 운영하는 구조이다. 진천 사업장에서는 콘크리트펌프트럭, 어태치먼트, 천공기 및 소방 특장차 등을 생산하고, 초평공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제조와 관련 서비스를 수행한다. 전주공장은 암반 천공용 락툴 제조를 담당하고, 진천의 연구개발 거점에서는 신제품 및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한다. 제품별로 생산 및 조립공정을 운영하며, 일부 원재료와 부품은 외부에서 조달한다.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다양한 건설·광산·재난대응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와 제조기술, 해외 판매망 및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결합한 사업기반이다. 특히 다수의 제품군을 통해 전방 수요처를 분산하고, 국내 제조기반과 해외 영업망을 활용해 지역별 시장환경에 대응한다. 다만 건설기계 사업의 특성상 글로벌 건설투자, 원자재 가격 및 환율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1994.07	법인 설립
2003.11	코스닥 시장 상장
2006.12	국무총리상 수상(2006년 생산기반기술경기대회)
2013.02	한국타워크레인 인수
2017.03	베트남 EDCF 수주 (231억 원)
2020.10	(주)타이포스 합병
2021.07	(주)에버다임락툴, 한국타워크레인(주) 합병
2023.12	한국수력원자력(주) 고유량 이동형펌프 수주 (763억 원)
2025.08	이라크 내무부용 소방 구조차량 공급 계약 (1,353억 원)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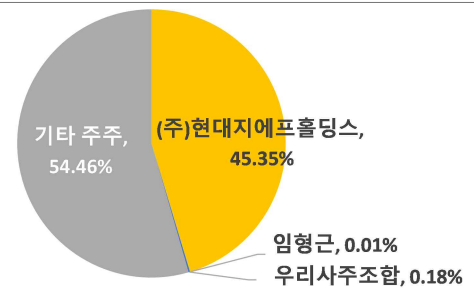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6월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주)현대지에프홀딩스로, 전체 발행주식(17,841,712주) 중 8,091,992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45.3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 임형근이 827주(0.01%)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45.36%이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이 32,545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9,716,348주(54.46%)는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지배구조는 최대주주 중심의 그룹 계열사 체계에 편입된 점이 특징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과반에 미치지 않지만, 다른 주요 주주가 확인되지 않는 분산된 주주 구성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높은 수준이고, 이는 경영권 안정성과 중장기 사업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사업전략과 자본배분 방향이 동사의 투자 및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규모 설비투자나 사업 추진 시 계열사 간 이해관계 조정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사의 지배구조는 안정적인 최대주주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와 이사회 중심의 경영 투명성 유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구조로 평가된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주)현대지에프홀딩스	8,091,992	45.35%	최대주주
임형근	827	0.01%	특수관계인
우리사주조합	32,545	0.18%	
기타 주주	9,716,348	54.46%	
합계	17,841,712	100.00%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사업은 유압기계, 차량 및 중장비 부문으로 구분된다. 유압기계 부문은 건설기계용 어태치먼트, 천공기, 타워크레인 등을 제조하며, 차량 부문은 콘크리트펌프트럭과 소방 특장차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장비 부문은 굴착기, 휠로더 등 건설장비의 유통 및 재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2025년 매출 기준 유압기계와 차량 사업이 핵심 매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유압기계 부문은 건설·토목·광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계장비를 생산한다. 주요 제품으로는 암반 및 콘크리트 파쇄용 유압브레이커와 크러셔, 작업장치 교체용 킥퍼플러, 고층 건축물의 자재 인양용 타워크레인, 암반 천공용 락드릴과 락툴 등이 있으며, 산업현장용 발전기도 공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다양한 작업환경에 대응하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설경기와 광산개발 투자에 따른 수요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차량 부문은 콘크리트펌프트럭과 소방·구조용 특수목적 차량을 제조한다. 콘크리트펌프트럭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장비이며, 소방 특장차는 화재진압과 고층 인명구조 등 재난대응에 활용된다. 특히 소방 특장차는 공공조달과 프로젝트형 수주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동사는 2025년 이라크 내무부와 약 1,353억 원 규모의 소방구조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공공조달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 및 납품 시점에 따라 매출이 변동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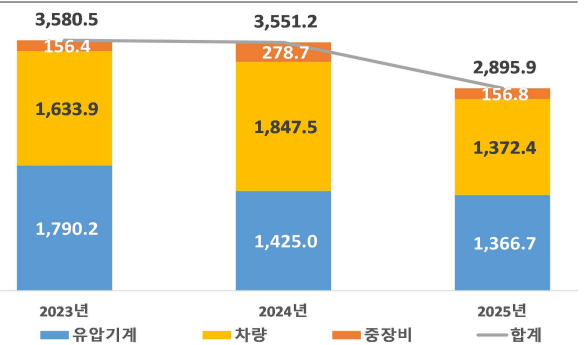
중장비 부문은 굴착기와 휠로더 등 건설장비를 매입하여 정비 및 성능 개선을 거쳐 재판매하는 사업이다. 신규 장비 제조보다는 장비 유통과 재상품화 기능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기존 건설기계 사업과 연계된 고객 및 유통망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2021년 전문건설업을 물적분할하고 2023년 관련 자회사를 매각함에 따라 현재는 건설장비의 유통 및 재판매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사는 건설기계 제조기술과 국내외 영업망을 기반으로 건설·토목·광산 및 재난대응 분야에 걸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유압기계와 콘크리트펌프트럭은 민간 건설투자에, 소방 특장차는 공공 안전예산과 국가별 조달사업에 주로 연동되며, 중장비 유통사업은 기존 제조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사는 기존 건설기계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소방·재난대응 장비와 해외 공공조달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별 수요 변동과 대형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수행이 주요 관리 과제로 판단된다.

[표 3] 동사의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유압기계 부문	1,790.2	50.0%	1,425.0	40.1%	1,366.7	47.2%
차량 부문	1,633.9	45.6%	1,847.5	52.0%	1,372.4	47.4%
중장비 부문	156.4	4.4%	278.7	7.9%	156.8	5.4%
매출 합계	3,580.5	100.0%	3,551.2	100.0%	2,895.9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는 국내 직접영업과 대리점 판매를 병행하고, 해외에서는 현지 법인 및 딜러망을 활용하는 판매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국내 영업조직은 6개 영업팀과 전국 약 30개 딜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에서는 3개 영업팀과 미국·중국·몽골·파나마 현지 법인 및 약 150개 딜러망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 판매는 건설기계 제조업체에 대한 직접 납품과 최종 수요처 및 대리점 판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어태치먼트는 HD현대인프라코어, 볼보그룹코리아 등 주요 건설기계 제조사에 일부 공급하며, 나머지는 직영점과 전국 판매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콘크리트펌프트럭과 타워크레인은 자체 영업조직 및 딜러망을 활용하고, 락드릴 등 광산·토목용 장비는 직접영업과 대리점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소방 특장차는 국내 조달청 입찰과 해외 정부기관 대상 프로젝트형 영업을 통해 공급한다.

해외 판매는 현지 법인과 딜러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별 판매망을 활용하여 신규 고객 확보와 기존 거래처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동사는 독일 바우마(Bauma), 미국 콘엑스포(CONEXPO), 프랑스 인터마트(Intermat) 등 주요 국제 건설기계 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품질 격차를 축소하고 가격 대비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현지 작업환경에 적합한 제품 공급과 부품·유지보수 지원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사는 일반 건설기계의 유통판매와 특장차의 프로젝트형 수주를 병행하며, 제품별 수요구조에 대응하는 영업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가절감과 품질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해외에서는 북미·중남미·유럽 등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판로를 다변화하고 있다.

II. 시장 동향

수요 확대와 친환경·지능화 기술 발전에 따른 성장 기회 속에서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시장

목표시장은 건설경기와 인프라 투자, 자원개발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경기민감 산업으로, 제품의 작업 성능과 내구성, 가격경쟁력 및 사후관리 역량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한다. 글로벌 시장은 신흥국의 인프라 확충과 광산개발, 선진국의 노후 시설 유지보수 및 장비 교체 수요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기술적으로는 작업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 운용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지능화 및 친환경화의 변화가 나타나고, 어태치먼트 분야에서는 고효율 유압시스템과 저소음·저진동 설계, 내구성 및 장비 호환성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 건설·광산용 기계장비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건설·광산용 기계장비 시장으로, 건축·토목공사와 광산·자원개발 현장에서 굴착·파쇄·천공·인양·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기계장비 시장으로 정의된다. 주요 제품은 건설기계용 어태치먼트, 천공장비, 건설용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산업은 기계설계와 정밀가공, 유압제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복합 제조업으로, 제품의 작업 성능과 내구성, 안전성 및 운용 효율성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한다.

목표시장은 전방산업인 건설·토목·광산업의 설비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기민감 산업이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민간 건축경기, 플랜트 건설 및 광산개발 활동이 주요 수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신규 프로젝트 발주와 기존 장비의 교체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수요가 발생한다. 특히 건설기계용 어태치먼트는 굴착기 등 기본 장비에 장착되어 파쇄·철거·다짐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교체형 작업장치로, 완성장비의 신규 판매와 기존 장비의 활용도 개선에 따른 수요가 동시에 존재한다. 콘크리트펌프카와 타워크레인은 건축 착공 및 대형 토목공사의 진행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천공장비는 광산개발과 터널·기초공사 등에 대한 투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관련하여 국내 건설·광산기계 시장은 2024년 7조 6,052억 원에서 연평균 4.4% 성장하여 2029년 9조 4,3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건설·광산기계 시장은 같은 기간 1,480억 달러에서 1,777억 달러로 연평균 3.7% 성장이 전망된다.

글로벌 대형 제조업체와 지역별 전문 제조업체들이 기술력과 가격, 판매망 및 사후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구조이다. 특히 고하중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되는 장비의 특성상 정밀 설계와 유압제어, 내마모 소재 및 품질검증 기술이 요구되며, 생산설비와 연구개발 및 안전인증에 필요한 비용이 신규 사업자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장비 구매자는 초기 구매가격뿐 아니라 연료비와 유지보수 비용, 부품 공급 안정성 등을 포함한 총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을 고려하므로, 제품의 성능과 가격경쟁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용 신뢰성과 현지 서비스 체계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평가된다.

보조 목표시장은 소방·재난대응용 특수목적 차량 시장으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및 각종 재난현장의 긴급 대응을 위해 특수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제조·공급한다. 해당 시장은 안전성과 운용 신뢰성이 제품의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하며, 차량과 특수장비의 통합설계 및 품질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특히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등 고난도 장비는 구조물의 안정성 검증과 유압장치의 정밀 제어, 비상작동 기능 및 안전성 시험이 필요하여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주요 수요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기관과 공공 안전기관 등으로 공공조달 예산과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주기, 재난대응 역량 확충 정책에 따라 수요가 형성되며, 발주기관별 요구 사양에 대응하는 주문형 생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목표시장은 인프라 투자와 광산·자원개발, 노후 시설 유지보수 및 장비 교체 수요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성장이 예상되나, 지역별 건설경기과 투자여건에 따라 수요 변화가 차별화되고 있다. 2025년 글로벌 건설기계 판매는 최근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중국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수요 회복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럽 시장에서도 건설기계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거나,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민간 건설투자 위축으로 성장세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 토목사업과 산업시설 등 일부 비주거용 건설수주가 개선되고 있지만, 주택건설 부진과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즉, 목표시장은 신흥국의 인프라 확충과 선진국의 장비 교체 수요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성장하되, 단기적으로는 국가별 투자환경과 건설 프로젝트의 착공 여부에 따른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시장에서는 작업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 운용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지능화 및 고효율화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용 어태치먼트는 다양한 작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기능화와 소형·경량화, 내구성 강화가 주요 개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콤팩터플러와 틸트로테이터 등을 활용한 장비 호환성 및 작업 편의성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센서와 정밀측위 기술을 활용한 자동제어·원격운용, 장비 상태 모니터링 및 예방정비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고효율 유압시스템과 저소음·저진동 설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에서는 장비의 기본 성능뿐 아니라 작업 효율성과 운용 편의성, 유지관리 비용 절감능력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정책 및 산업환경은 인프라 투자정책과 환경·안전규제,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주요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핵심 광물 개발정책은 건설·광산기계의 신규 수요를 촉진하는 반면, 배출가스 및 소음규제 강화는 장비의 기술개발과 인증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변동에 대응하여 생산거점 및 부품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장비 판매 이후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 원격진단 및 예방정비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는 기존 제조업체의 경쟁 부담을 높이고 있어, 향후 제품의 기술적 차별화와 현지 서비스 역량이 시장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조 목표시장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노후 소방장비 교체, 고층 건축물 및 대형 산업시설 확대 등의 요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화재 및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소방·구조장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목적 차량의 안전제어 및 정밀 구동기술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정책 확대에 따라 전기동력 기반 특장차 개발도 추진되고 있으나, 긴급출동과 장시간 고출력 작업이 요구되는 특성상 충전 인프라와 운용 신뢰성 확보가 상용화의 주요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 국내 건설·광산기계 시장

(단위 : 억 원)

[그림 2] 글로벌 건설·광산기계 시장

(단위 : 억 달러)



자료: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고하중 구조설계와 유압·정밀제어 기술 기반의 기술경쟁력 보유

동사는 고하중 기계구조 설계와 유압 구동·제어기술을 기반으로 건설·광산장비 및 소방 특장차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핵심 보유기술은 유압식 파쇄·작업장치 기술, 고압 콘크리트 압송 및 붐 제어기술, 소방·구조장비 통합설계 및 안전제어 기술로, 장비의 작업 성능과 내구성, 안전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연구소와 R&D센터를 운영하며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과 해외시장 맞춤형 신제품 개발, 고성능 소방·재난대응 장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비롯한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ISO 경영시스템 인증과 CE 등 해외 규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건설·광산장비 및 소방 특장차에 필요한 고하중 기계구조 설계와 유압 구동·제어 기술을 통합하여 실제 작업환경에 적합한 장비를 구현하는 역량에 기반한다. 특히 암반 파쇄와 천공, 콘크리트 압송, 고층 인명구조 등 서로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힘과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장비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유압식 파쇄·작업장치 기술은 주력 제품인 유압브레이커, 크러셔 및 킥커플러 등에 적용되는 기반 기술이다. 유압브레이커는 높은 압력의 작동유로 피스톤을 반복적으로 움직여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장비로, 타격력과 에너지 전달 효율, 부품의 내마모성 및 내구성이 주요 성능을 결정하며, 피스톤과 밸브의 작동구조를 개선하고 충격과 소음을 줄이는 설계기술을 확보하였다. 크러셔에는 고하중 압착·절단 기능을 구현하는 기구설계 기술을 적용하였다. 또한 킥커플러는 굴착기의 작업장치를 신속하게 교체하면서 결합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전 기능과 장착상태 확인 및 안전잠금 기능을 통해 작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이는 다양한 작업환경에 대응하는 제품군을 구성하고 건설기계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고압 콘크리트 압송 및 붐 제어기술은 콘크리트펌프트럭의 작업 성능과 안전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다.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유압 실린더를 반복적으로 작동시켜 콘크리트를 고압으로 이송하고, 여러 관절로 구성된 붐을 움직여 원하는 위치에 콘크리트를 공급한다. 동사는 펌핑 압력과 실린더의 작동속도를 조절하고, 콘크리트 압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붐의 흔들림을 줄이는 제어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지지하는 아웃트리거의 작동상태와 붐의 움직임을 연계하여 전복 위험을 줄이는 안전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고층 건물과 대형 토목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압송 성능을 확보하며 장비의 작업 안정성과 운용 신뢰성을 높인다.

소방·구조장비 통합설계 및 안전제어 기술은 동사의 소방 특장차 사업을 뒷받침한다.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는 차량에 장착된 대형 사다리와 작업대를 높은 위치까지 전개해야 하므로, 구조물의 강도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동사는 사다리의 신축·회전 및 승강장치 설계와 함께 승강기 제동, 사다리 잠금, 추락 방지 및 작업대 안전장치에 관한 기술, 소방차량의 방수포를 원격으로 조작하고 물의 분사 방향과 작동상태를 통합 제어하는 기술, 고압의 물이나 미세한 물 입자를 이용하는 소화장비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고층 인명구조와 항공기 화재, 산업시설 재난 등 일반 소방차보다 높은 수준의 장비 성능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응하는 기술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그림 3] 동사의 콘크리트펌프카와 굴절사다리차



자료: 동사 카탈로그,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연구개발 역량

동사는 기업부설 기술연구소와 R&D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연구소는 어태치먼트, 콘크리트펌프트럭, 타워크레인, 소방 특장차 및 락드릴 등 주요 제품의 신제품 개발과 성능 개선을 담당하고, R&D센터는 구조해석과 동역학·유압 해석, 설계 최적화, 시뮬레이션 검증 및 기술기획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제품별 개발조직과 공통 설계·해석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장비의 설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정성과 작동 성능을 검토하고 실제 제품개발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 소방·재난대응 분야의 연구개발은 특수목적 차량의 고성능화와 적용 분야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과제로 2025년까지 수행한 항공기 구조소방차 개발과 70m급 굴절사다리 소방차의 성능 고도화 사업이 있다. 항공기 구조소방차 개발은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70m급 굴절사다리 소방차 개발은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제품 성능과 운용능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발전소의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고압이동형 펌프차와 초고압방수차도 개발하였다. 이는 동사의 연구개발이 소방차량 제조를 넘어 항공기 사고와 발전소 재난 등 특수한 사용환경에 대응하는 장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설·광산용 장비 분야에서는 제품의 작업 성능 개선과 해외시장 맞춤형 개발,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주요 연구개발 방향이다.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T500ProR 천공기 개발과 락드릴용 로터리헤드 국산화 과제는 지역별 고객 요구에 대응하며 핵심 구동부품의 기술 축적과 원가경쟁력 확보를 추진한 사례이다. 또한 굴착기 제조업체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한 작업장치 공동개발과 외장링크형 붐을 적용한 콘크리트펌프트럭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비의 운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양산 적용 개발을 수행하여, 기존 기계장비에 전자·정보통신 기능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범위를 넓히고 있다.

■ 지식재산권 현황

동사의 지식재산권은 건설·광산용 기계장비와 소방 특장차의 작동구조, 안전장치 및 제어기술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다. 등록특허의 주요 분야는 유압브레이커 및 크러셔, 어태치먼트 결합장치, 콘크리트펌프의 압송·붐 제어, 천공장비의 구동·작업관리, 소방차량의 사다리·승강장치 및 소화설비 등이다.

특허는 장비의 작동 성능과 안전성, 유지보수 편의성을 개선하는 설계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유압브레이커 분야에서는 피스톤과 밸브의 작동구조, 소음 저감 및 전기식 구동 기술이, 어태치먼트 분야에서는 회전식 킥퍼플러와 안전잠금·장착상태 확인 기술이 권리화되어 있다. 콘크리트펌프트럭 분야에서는 압송 압력 제어와 붐 흔들림 억제, 전복 방지 기술이, 천공장비 분야에서는 로드 교환과 천공 깊이 관리, 구동 안정화 기술이 주요 등록특허로 확인된다. 소방 특장차 분야에서는 고가사다리 승강기의 제동·잠금장치와 방수포 통합제어, 미분무 소화설비 등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유압브레이커와 중국의 유압파쇄기 관련 등록특허를 확보하여 일부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 권리 보호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제품 외관과 구조적 형상을 보호하는 디자인권과 브랜드를 보호하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등록상표에는 HYUNDAI EVERDIGM, RHINO, MAXPLO 등 기업 및 제품 관련 명칭이 포함되어 있다.

동사는 제품 품질과 생산환경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ISO 9001(품질경영), ISO 14001(환경경영), ISO 45001(안전보건경영)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어태치먼트, 천공기, 콘크리트펌프 및 일부 소방차량에 대한 CE 적합성 확보와 타워크레인 등 주요 제품의 해외 규격 대응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소방 특장차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성능 검증이 요구되어, 동사의 품질관리 체계와 제품별 인증·규격 대응역량은 제품 신뢰성 확보와 해외 거래처 확대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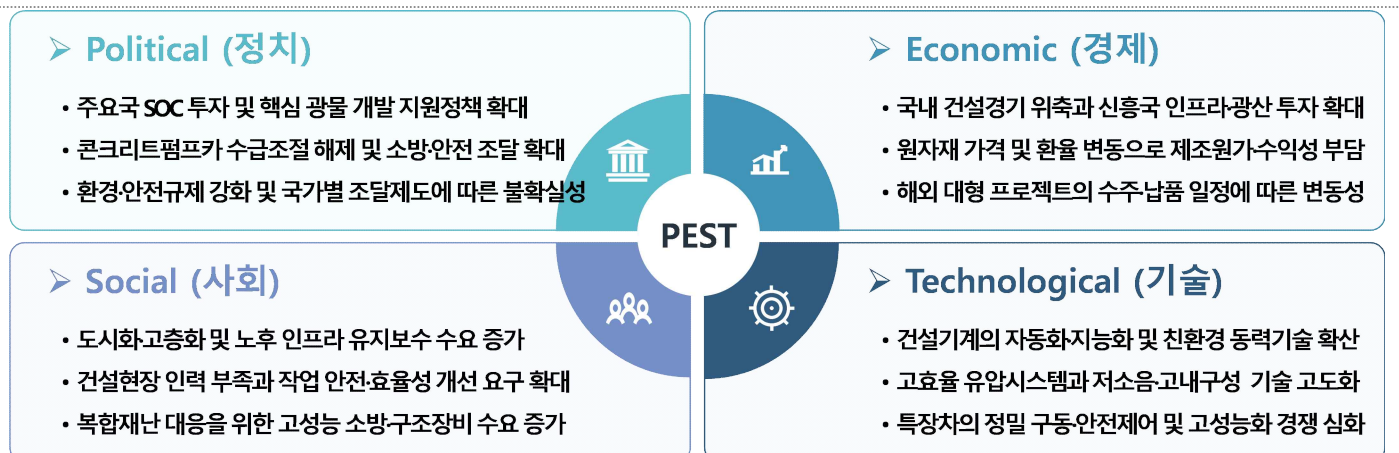
건설·광산용 기계장비 산업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과 건설기계 관련 규제, 소방·재난대응 장비의 공공조달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주요국의 인프라 확충과 핵심 광물 개발 지원정책은 건설·광산용 장비 수요를 촉진하며, 국내 콘크리트펌프카의 수급조절 해제는 신규 공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재난안전 투자 확대와 노후 소방장비 교체정책은 소방 특장차 시장의 성장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배출가스·소음규제와 소방차량의 안전·인증기준 강화는 규제 대응비용을 증가시키며, 국가별 공공조달 제도와 대외정책 변화는 해외 프로젝트의 수주 및 납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설·광산용 기계장비 시장은 건설경기과 인프라 투자, 광산개발에 연동되는 경기민감 산업으로, 금리와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국내 건설투자 위축은 장비 구매를 제약하나, 신흥국의 인프라 확충과 광산개발 투자는 해외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와 주요 부품 가격의 상승은 제조원가 부담을 높이며,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구조상 환율 변동과 해외 대금 회수 여건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형 공급계약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만, 프로젝트별 발주·납품 시점과 원가 변동에 따라 실적이 변동할 수 있다.

도시화와 건축물의 고층화, 노후 인프라의 유지보수 및 재건축 수요 증가는 건설기계와 특수목적 장비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의 숙련인력 부족과 작업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는 작업 효율성과 조작성 편의성이 높고 자동화 기능을 갖춘 건설기계의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대형 화재와 자연재해 등 복합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고층 인명구조와 대규모 화재진압에 대응하는 고성능 소방 특장차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사의 어태치먼트 및 소방·구조장비 사업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비의 안전성과 운용 신뢰성, 유지보수 편의성에 대한 고객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광산용 기계장비 산업은 작업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지능화 및 친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센서와 전자제어 기술을 활용한 정밀 작업제어, 원격운용 및 장비 상태 모니터링 기술이 확대되고 있으며, 어태치먼트 분야에서는 고효율 유압시스템과 저소음·저진동 설계, 내구성 및 장비 호환성 개선이 주요 개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 특장차 분야에서도 사다리의 정밀 구동 및 안전제어 기술, 고성능 소화설비와 친환경 동력계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사는 유압 구동·제어와 고하중 구조설계, 소방·구조장비 통합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술경쟁과 핵심 부품의 전자화·전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4]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유압기계·중장비 중심의 매출 회복과 재무안정성 점검

동사의 연결 매출액은 2023년 3,580.5억 원, 2024년 3,551.2억 원, 2025년 2,895.9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차량사업부문의 매출 축소가 전체 외형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 3.3%에서 2025년 1.9%로 하락하였으나, 3개년 연속 영업흑자와 당기순이익 흑자를 유지하며 기본적인 이익 창출 기반을 확보하였다. 2026년 상반기에는 유압기계와 중장비부문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도 120.1% 증가하면서 수익성 회복세가 나타났다. 재무 측면에서는 2025년 기준 부채비율 53.9%, 자기자본비율 65.0%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부채비율이 84.1%로 상승하였으나 자기자본비율 54.3%를 기록하며 일정 수준의 재무완충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유압기계와 중장비 중심의 매출 회복 기대

동사의 연결 매출액은 2023년 3,580.5억 원에서 2024년 3,551.2억 원으로 0.8%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2,89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하였다. 2025년에는 주력 사업부문의 매출 축소로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특히 차량사업부문의 매출 감소가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쳤으며,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사업의 수요와 납품 실적 변동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유압기계부문은 2023년 1,790.2억 원, 2024년 1,425.0억 원에서 2025년 1,366.7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차량사업부문은 2023년 1,633.9억 원, 1,847.5억 원에서 1,372.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중장비부문은 156.4억 원, 278.7억 원에서 156.8억 원으로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43.7%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유압기계부문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 40.1% 대비 확대되었으며, 차량사업부문은 52.0%에서 47.4%로 축소되었다.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1,61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473.9억 원 대비 9.7% 증가하였다. 유압기계부문은 78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중장비부문은 31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13.2억 원 대비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차량사업부문은 51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2025년 매출 감소 이후 유압기계와 중장비부문을 중심으로 외형 회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반기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차량사업부문의 감소 폭이 완화될 경우 연간 매출 회복이 기대된다.

■ 영업흑자 유지와 수익성 회복 기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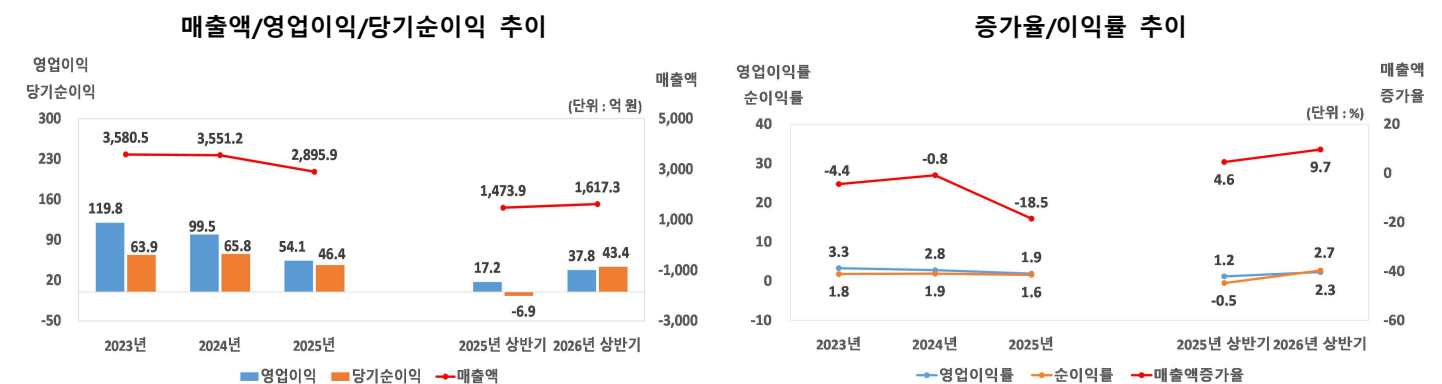
동사의 연결 영업이익은 2023년 119.8억 원에서 2024년 99.5억 원, 2025년 54.1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각각 3.3%, 2.8%, 1.9%로 하락하였다. 매출 감소에 따라 영업이익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매출원가는 2023년 3,063.8억 원, 2024년 2,994.9억 원, 2025년 2,400.0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매출원가율은 각각 85.6%, 84.3%, 82.9%로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은 하락하여 매출총이익률이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판관비율은 11.1%, 12.9%, 15.3%로 증가하여 판관비 부담은 다소 확대되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63.9억 원, 2024년 65.8억 원, 2025년 46.4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1.8%, 1.9%, 1.6%를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와 함께 순이익 규모도 다소 축소되었다.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3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17.2억 원 대비 120.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2.3%로 개선되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6.9억 원에서 43.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다. 유압기계부문과 중장비부문의 매출 확대가 수익성 회복에 기여하였다. 전반적으로 2025년까지 수익성 지표 감소 흐름이 이어졌으나, 2026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주력 사업의 매출 증가와 비용 부담 완화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도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견조한 자기자본 기반과 재무안정성 유지

동사의 3개년 자산총계는 2023년 2,975.4억 원, 2024년 2,965.3억 원, 2025년 2,951.2억 원으로 최근 3개년 동안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2025년 말 유동자산은 2,126.8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72.1%를 차지하였으며, 유동비율은 3년간 191.4%, 205.5%, 211.1%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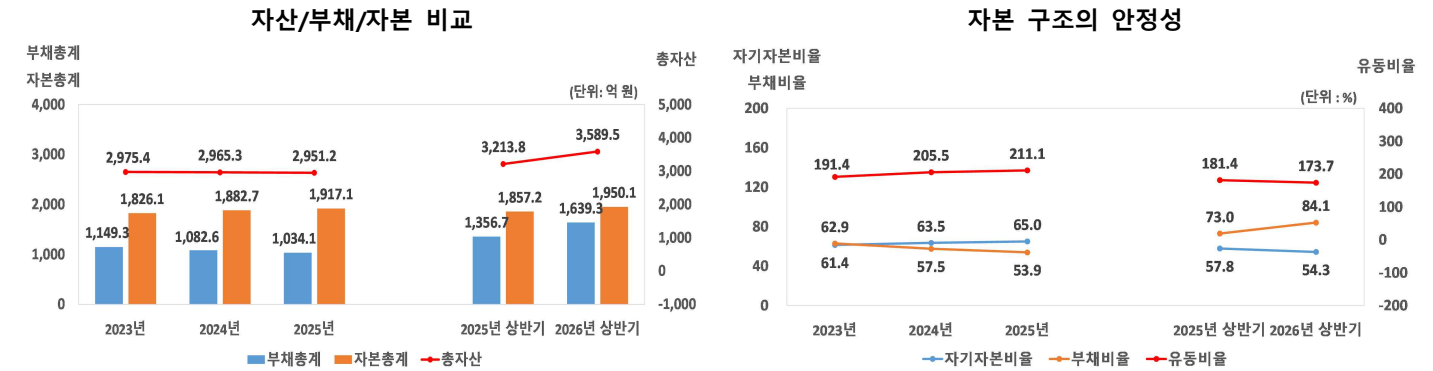
3개년 부채총계는 2023년 1,149.3억 원, 2024년 1,082.6억 원, 2025년 1,034.1억 원으로 지속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 역시 각각 62.9%, 57.5%, 53.9%로 하락하면서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개선되었다. 단기차입금은 2024년 401.0억 원에서 2025년 483.5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336.7억 원에서 302.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3개년 자본총계는 2023년 1,826.1억 원, 2024년 1,882.7억 원, 2025년 1,917.1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61.4%, 63.5%, 65.0%로 상승하였다. 특히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본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익잉여금 축적과 안정적인 영업성과가 지속될 경우 자기자본 중심의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상반기 유동비율은 173.7%, 부채비율은 84.1%, 자기자본비율은 54.3%를 기록하며 일정 수준의 재무완충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 부채 축소와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안정성이 개선되었으며, 2026년에는 영업 확대 과정에서 부채와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압기계 및 중장비부문의 매출 회복이 영업현금흐름 개선으로 연결될 경우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매출액	3,580.5	3,551.2	2,895.9	1,473.9	1,617.3
매출액증가율(%)	-4.4	-0.8	-18.5	4.6	9.7
영업이익	119.8	99.5	54.1	17.2	37.8
영업이익률(%)	3.3	2.8	1.9	1.2	2.3
순이익	63.9	65.8	46.4	-6.9	43.4
순이익률(%)	1.8	1.9	1.6	-0.5	2.7
부채총계	1,149.3	1,082.6	1,034.1	1,356.7	1,639.3
자본총계	1,826.1	1,882.7	1,917.1	1,857.2	1,950.1
총자산	2,975.4	2,965.3	2,951.2	3,213.8	3,589.5
유동비율(%)	191.4	205.5	211.1	181.4	173.7
부채비율(%)	62.9	57.5	53.9	73.0	84.1
자기자본비율(%)	61.4	63.5	65.0	57.8	54.3
영업현금흐름	375.5	80.1	-49.9	-186.5	-286.2
투자현금흐름	-100.8	-91.8	-24.9	-15.3	-23.8
재무현금흐름	-223.4	24.8	58.2	143.1	285.8
기말현금	95.7	111.4	93.8	51.0	73.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매출액은 2025년 2,895.9억 원에서 2026년 3,65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2024년 매출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국내 건설경기 부진과 해외 프로젝트 지연 등에 따른 실적 감소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유압기계 부문의 점진적인 회복과 차량 부문의 수주 확대, 중장비 유통사업의 매출 증가가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압기계 부문 매출은 2025년 1,366.7억 원에서 2026년 전년 대비 증가한 1,55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건설경기 부진은 유압브레이커와 크리셔, 콘크리트 관련 장비의 수요 회복을 제약할 수 있으나,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와 몽골·중남미 등 광산개발 지역의 장비 수요는 해외 판매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동사는 다양한 제품군과 해외 판매망을 기반으로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과 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건설·광산장비의 경기민감성과 글로벌 제조업체 간 가격경쟁을 고려할 때, 해외 수요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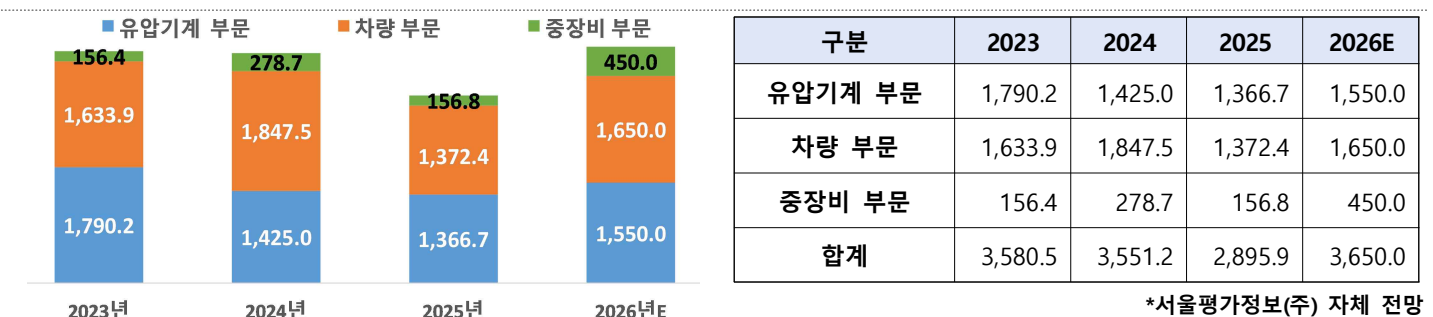
차량 부문 매출은 2025년 1,372.4억 원을 기록했고, 2026년에는 1,65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크리트펌프트럭은 국내 건설투자 부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2026년부터 국내 신규 등록에 대한 수급조절이 해제되어 장비 교체 및 신규 수요가 일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소방 특장차 분야에서는 고성능 소방·구조장비에 대한 국내외 수요와 해외 공급계약이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2025년 체결한 이라크 내무부 대상 소방구조차량 공급계약은 향후 매출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계약의 납품기한이 2027년 3월까지이나, 매출 반영 규모와 시점은 제작 및 납품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장비 부문 매출은 2025년 156.8억 원에서 2026년 45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건설·광산용 중장비의 국내외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외 광산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장비 수요 확대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몽골 등 해외 거점을 활용한 장비 공급과 거래선 확대가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장비 부문은 상품 판매의 특성이 강하고, 대형 장비의 거래 시점과 수요처의 투자계획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높을 수 있어 예상 매출의 지속성과 수익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2026년 유압기계의 해외 수요 회복과 소방 특장차의 대형 수주, 중장비 유통 확대를 통해 매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차량 부문의 납품 확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장비 상품매출 비중 확대와 소방 특장차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은 외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매출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직접 연결되는지는 제품별 원가와 납품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실적은 해외 건설·광산장비 수요의 회복 수준과 소방 특장차의 계약 이행 일정, 원가 및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및 사업경쟁력 제고 추진 중

동사는 기존 유압기계·차량·중장비 중심의 사업구조를 유지하면서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2025년 이라크 내무부와 체결한 대형 소방구조차량 공급계약은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주환원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현금배당과 기존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였다. 향후 신흥국 인프라·광산개발 투자와 글로벌 재난안전 수요 확대는 동사의 해외사업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방 특장차의 대형 계약 수행실적은 후속 수주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건설경기 변동과 글로벌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화, 해외 프로젝트의 납품 일정 등은 주요 위험 요인으로, 향후 사업경쟁력은 기술 고도화와 해외 판로 확대, 안정적인 계약 이행 및 위험관리 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변동사항

2025년 8월 이라크 내무부와 체결한 소방·구조차량 공급계약은 동사의 최근 사업 전개에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해당 계약은 굴절사다리차와 소방펌프차, 급수차 및 구조차 등 총 316대의 차량과 관련 부품·교육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고성능 소방장비 제조역량을 해외 공공조달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기존 건설기계 제조기술을 활용한 특장차 사업이 별도의 성장영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2026년 6월 말 기준 해당 계약의 납품실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종 납품기한이 2027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제작 및 계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주환원 측면에서 현금배당의 지속과 자기주식 소각이 주요 변화로 확인된다. 동사는 2024년 2월 중장기 배당정책을 발표하고 2023~2026년 사업연도에 대해 연결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배당하는 것을 지향하되, 연간 배당액의 변동 폭을 전년 대비 $\pm 30\%$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 사업연도까지 보통주 1주당 70원의 현금배당을 유지하였다. 또한 2024년 결산배당부터 배당금이 확정된 이후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여 주주가 배당 수준을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배당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2026년 2월 기존 보유 자기주식 74,232주의 소각을 결정하고 같은 해 4월 소각을 완료하였다. 해당 조치는 별도의 신규 매입 없이 기존 보유물량을 소각한 것으로, 유통주식과 발행주식 간 차이를 해소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자기주식 취득이나 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장기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주주환원정책은 기존 배당방침의 유지 여부와 새로운 정책 발표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향후 전망

동사는 건설·광산용 장비의 해외시장 확대와 소방·재난대응용 특수목적 차량의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사업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은 신흥국의 인프라 확충과 광산개발 투자, 기존 장비의 교체 및 유지보수 수요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다만 지역별 건설투자와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장비 구매 수요의 차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내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동사는 몽골과 중남미 등 광산개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고, 북미 및 유럽으로 판매지역을 확대하여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압기계 사업에서는 어태치먼트의 성능 고도화와 해외 고객 맞춤형 제품개발이 주요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고효율 유압시스템, 저소음·저진동 설계 및 작업장치의 교체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천공장비 분야에서도 높은 내구성과 정밀한 구동 성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동사는 기존 기계설계와 유압제어 역량을 활용하여 장비 성능을 개선하는 동시에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전자제어 기능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크리트펌프트럭은 국내 수급조절 해체에 따른 신규 등록 여건 개선이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실제 장비 구매는 건설현장의 착공과 설비투자 상황에 좌우되므로 수요 회복 속도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소방 특장차 사업은 동사의 중장기 성장전략에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노후 소방장비 교체, 고층 건축물 및 대형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필요성은 고성능 소방·구조차량의 수요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동사는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등의 구조설계 및 안전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고난도 장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라크 내무부와의 대형 공급계약은 향후 해외 공공기관 대상 영업에서 중요한 납품실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방 특장차는 주문형 제작과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요구되므로 생산일정과 주요 부품의 조달, 현지 인도 및 교육 등 계약 이행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규 수주 확대는 국가별 재정여건과 공공조달 일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경쟁력 측면에서는 기존 유압 구동·제어기술과 고하중 구조설계 역량을 활용하면서 자동화·지능화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건설기계 제조업체들은 원격운용과 장비 상태 모니터링, 전동화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중심으로 제품 경쟁을 확대하고 있으며, 소방 특장차 분야에서도 정밀 안전제어와 고성능 소화설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사는 다양한 장비군에서 축적한 설계·제조기술과 연구개발 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글로벌 대형 제조업체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신흥국 제조업체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 차별화와 품질관리, 현지 유지보수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기존 건설·광산장비 사업의 해외 판매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소방·재난대응 장비의 공급을 확대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흥국 인프라·광산개발 수요와 글로벌 재난안전 투자 확대는 새로운 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존 대형 수주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은 후속 프로젝트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내외 건설경기의 변동과 글로벌 가격경쟁,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화, 해외 공공조달사업의 계약 이행 위험은 주요 부담 요인이다. 따라서 동사의 중장기 사업경쟁력은 건설기계의 기술 고도화와 해외시장 다변화, 소방 특장차의 생산·납품 역량 강화 및 사업별 위험관리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에버다임(04144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10.2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현대에버다임	X	X	X